조나단 드미의 양들의 침묵의 감상

컴퓨터 학과 2013210061 채윤병

양들의 침묵이라는 제목은 스탈링의 과거 시절의 기억과 관련이 깊다. 그녀는 과거에 삼촌의 집에서 지냈던 기억이 있다. 그 곳은 목장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무언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는 일어나서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는데 다름 아닌 삼촌이 어린 양들을 죽이고 있던 것이었다. 양들은 소리를 질렀고 그녀는 한 마리 양을 들고 도망쳤다는 이야기다. 극 중에 이 이야기는 카메라로 담기지 않고 스탈링의 음성으로 소개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극 중의 전체적인 이야기로 반복되고 비교된다. 어린 양들과 갇혀있던 여성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영화 내내 드러난다. 어쩌면 감독은 모든 약자를 양으로 그리고 갈등이 팽배한 사회를 목장으로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극의 마지막에 승진을 하며 스탈링은 크로포드와도 화해를 하며 웃음이 가득한 표정을 카메라에 비춘다. 하지만 전화를 받게 된 후에는 어땠는가? 한니발 렉터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의 표정을 어두워진다. 그리고 양들은 더 이상 울부짖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똑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양들은 침묵해야 하는가? 목장의 양들은 평소에는 침묵한다. 삼촌이 도살을 하기 직전까지도 양들은 침묵을 하다가 도살을 하고 나서야 울부짖는다. 마치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를 때는 침묵하다가 강자들이 본 모습을 보이는 순간 애원을 하고 또 분노를 한다. 캐서린도 그랬다. 처음엔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마침내 분노를 하며 저항한다. 캐서린의 폭력적인 모습에서 한니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그러한 모습은 절대적 악이 아니며 약자의 한계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강아지를 안고 나가던 캐서린의 모습에서는 연민도 느껴졌다.

양들은 분노해야 한다. 양들은 침묵해선 안된다. 양들이 울부짖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린 대답해야 한다. 아직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고 말이다.